

## 광주 1조6천447억·전남 5조2천억원

내년 정부예산 반영...올해보다 광주 2.2%·전남 3.6% 늘어

광주~완도 고속도로·진도 팽목항 해양안전관 사업비 포함

정부가 전년 대비 11조3000억원이 늘어난 38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광주·전남지역의 일부 주요 현안사업들의 예산들이 여전히 반영되지 않아 국회 예산안 심의 막판까지 광주시와 전남도는 물론 지역 정치권 등이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내년도 광주시의 정부예산안은 1조6447억원으로, 올해 정부예산안 확보액 1조6086억원에 비해 361억원(2.2%)이 늘었다. 신규사업은 40건에 909억원, 계속사업은 154건 1조5538억원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보조사업 10% 감축, 신규사업 억제 및 유사중복사업 통합 등 지출을 억제한 상황에서 나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특히 2015하계U대회 개최 지원비(422억원)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비(353억원) 등이 마무리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증가액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노후한 하남산단을 바꿀 경쟁력 강화사업이 시작되며 도심권 교통체증 해소가 기대되는 상무지구~첨단단지 간 도로개설도 첫 삽을 뜬다. 이밖에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용봉·서방천 수질개선사업, 그린빛을 인프라 조성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된다.

전남도는 5조2000억원으로, 올해 정부예산안 반영액보다 1792억원(3.6%)가 늘어난 규모다.

우선 1994년부터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던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사업비가 올해 240억원(예산 90억원, 추경예산 150억원)이 반영되며 이어 내년에도 133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여수와 순천 등 동

부권 70만명의 주민 식수와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게 되는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비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특히 최근 국가 정원 1호로 선정된 순천만 국가정원 관리 운영비 33억원이 신규 사업비로 반영되면서 매년 국가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또한, 지난 한해동안

전 국민에게 슬픔을 안겼던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진도 팽목항 인근에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사업비 270억원 가운데 내년도 사업비 42억원이 확보돼 해상안전교육 및 체험시설을 조성이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자동차 100만대 도시 기반 조성(광주) 사업비,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전남) 등 골짜기 광주·전남 주요 현안사업 일부 예산이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 2016년 예산안 반영액(단위: 원)

정부 예산	386조
광주시	1조 6447억
전남도	5조 2000억

### ■ 2015년 대비 증가액(단위: 원)

정부 예산	11조 3000억(3.0%↑)
광주시	361억(2.2%↑)
전남도	1792억(3.6%↑)



총장로에 나온 기린...즐거운 어린이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은 문화전당 개관을 기념해 12일까지 광주 시 동구 총장로 일대에서 거리예술 퍼레이드를 펼친다. 사진은 스페인 극단 히라키테올라팀의 '안녕! 기린' 퍼포먼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은 문화전당 개관을 기념해 12일까지 광주 시 동구 총장로 일대에서 거리예술 퍼레이드를 펼친다. 사진은 스페인 극단 히라키테올라팀의 '안녕! 기린' 퍼포먼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남북 이산가족 100명씩 내달 20~26일 상봉

금강산 면회소에서

남북은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기로 8일 합의했다. <관련기사 2면>

양측은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등을 논의하는 무박 2일의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2개항의 합의를 채택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마지막으로 개최된 이후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1년8개월 만에 재개되게 됐다.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는 남북 각각 100명씩, 200명 규모다. 거동이 불편한 상봉 대상자는 1~2명의 가족이 동행할 수 있다. 양측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생사확인 의뢰서를 오는 15일에, 생사확인 결과가 담긴 회보서를 다음 달 5일에, 최종 상봉 대상자 명단은 같은 달 8일에 교환하기로 했다. 생사확인 의뢰 대상자는 남측 250명, 북측 200명으로, 이들 중 남북 각각 100명이 최종 상봉 대상자가 된다.

통일부는 "상봉방식과 선발대 파견 등 실무사항은 관례에 따라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판문점을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또한 인도주의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가까운 시일 내 적십자 분회담을 열어 이산가족 상봉에서 제기되는 문제 등을 폭넓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측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 외에 ▲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 ▲ 이산가족 서신 교환 ▲ 이산가족 고향방문 ▲ 상봉 행사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지만, 북측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양측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적십자 분회담을 열어 상봉 행사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남북이 지난달 25일 고위급 접촉 합의 사항 중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기 위해 당국 회담 개최와 민간 교류 활성화 등 다른 합의사항 이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 호남선 KTX '나주역 경유' 최종 확정

국토부, 1년 늦춰 2018년 완공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광주송정~목포 구간 노선에 나주역 경유가 최종 확정됐다. 공사기간은 2017년에서 2018년으로 1년 연장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호남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 변경계획'을 고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애초 '오송~익산~광주송정~목포(목포역)' 경유안을 변경해 '오송~익산~광주송정~나주~목포(목포역)' 경유로 호남고속철 2단계 노선을 최종 확정했다. 변경 고시문에는 광주송정~고막원 구간은 기존선을 고속화하고, 무안공항 경유 논란이 있는 고막원~목포 구간은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하되, 신설 노선이 건설 개통될 때까지는 기존 호남선을 우선 이용하도록 했다.

또 공사기간도 당초 광주송정~목포 구간을 2017년에서 광주송정~고막원까지 포함해 2018년까지로 늦춰졌고, 고

막원~목포 구간의 공사기간은 노선을 최종 확정된 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무안공항 경유로 촉발됐던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광주송정~목포 구간 중 나주 경유는 확정됐고, 무안공항 경유 문제는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건설 계획에서 나주역을 배제하는 대신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나 국토부는 고시를 통해 나주역 경유를 확정짓고 오송~익산~광주송정~나주~목포 구간의 기존선을 고속화하기로 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내년 정부 예산 386조7천억...복지 비중 31%

국가채무 50조 늘어 645조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375조4000억원)와 비교해 3.0%(11조3000억원) 늘어난 386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21% 늘어나고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1%를 넘어선다. 공무원 임금은 3.0% 오

른다. 재정기능을 강화한 예산편성으로 내년엔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50조원가량 많은 645조원대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는 12월 2

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386조7000억원)의 전년 대비 증가율 3.0%(11조3000억원)은 2010년

(2.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세출 6조2000억원과 기금계획 변경 3조1000억원을 포함하면 실질 증가율은 5.5%로 높아진다. 정부는 당시 추경에 사회간접자본(SOC) 등 2016년에 집행할 사업을 앞당겨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세와 기금을 포함한 내년도 총수입은 올해 예산보다 2.4% 증가한 391조5000억원으로 책정했으며, 총지출은 3% 늘어난 886조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연합뉴스

시간을 거슬러  
눈부시게 빛나는 길  
헤라 에이지 리버스 쿠션

시간을 거슬러는 빛을 가져와  
피부에 빛을 머금어 빛나는 것이 되게 하고  
속해선 어린 피부를 되살려주는 에이지 리버스 쿠션.  
눈부신 빛과 젊음 그 모든 것을 갖고 더 눈부시게

HERA

400-800-0000 (주요도시 제외) | www.hera.co.kr